

# GAI 2014

Global  
Alternative  
Investment  
Insights  
2014



DIGITAL VERSION OF  
THE MAEL BUSINESS NEWSPAPER  
2014년 5월 19일

## 사학연금 대체투자 비중 20%까지 확대

### IB업계 "경영권 승계 차원이라 효과 제한적"



국내 3대 연기금인 사학연금이 오는 2016년까지 대체투자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채권 수익률도 낮아 대체투자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것이다. 지난 2006년부터 대체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학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처음 5%(약 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5%(약 1조7000억원)까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으로 개편한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 2014)'에서 '사학연금은 수익제고 차원에서 2016년까지 대체투자 비중을 2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학연금의 주요 대체투자 분야는 사모투자(PE) 36%, 사회간접자본(SOC) 35%, 부동산 22% 등으로 구성된다. 상대적으로 벤처와 상품(Commodity)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박 단장은 "올해는 3가지 부분의 비중을 균형있게 맞춰 부동산 투자 비중을 28%까지 늘릴 계획"이라면서 "SOC 분야는 신규 투자 건이 많지 않아 비중

이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채권과 더불어 대체투자 분야에서도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박 단장은 "대체투자의 90%가 국내에 집중돼 있는데 해외투자 비중을 올 연말까지 15%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규 투자 증가분은 4000억원으로 부동산이 2200억원, PEF 1000억원, SOC 500억원 등이다. 박 단장은 "앞으로 각 부문에서 위험부담을 더 높여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그런 맥락에서 해외투자를 ... | 기획취재팀 +more

## 전두환 장남 소유 허브빌리지, 매각 닷 올라

경기도 연천 임진강변에 위치한 에코테마파크 허브빌리지 매각 일정이 확정됐다. 허브빌리지는 전두환 전(前)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소유자산으로 지난해 8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환수 차원에서 검찰에 압류된 후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허브빌리지 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주관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이달 27일 매각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관련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16일 인수희망서(LOI)를 마감하고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검찰청이 직접 매각을 주도하고 있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최고가를 제시한 후보에게 매각할 방침인 터라 분입찰을 거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르면 7월 초까지 계약체결까지 끝내 같은 달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 | 신수현 기자 +more

## 동양네트웍스 웨스트파인GC 매각 재추진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양네트웍스가 보유자산인 웨스트파인클럽(GC) 매각을 재추진한다.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15일 보유중인 웨스트파인GC 및 동양레저의 GC운영권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매각주간사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인수희망서(LOI)를 접수하면 된다. 동양네트웍스는 이미 웨스트파인GC 매각을 몇 차례 시도해왔다.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2012년말 계열사인 동양레저로부터 793억원에 웨스트파인GC를 사들였으나 지난해 말 주력사업인 시스템통합(SI) 부문 실적 악화와 당시 진행중이었던 동양매직 인수에 재무적투자자로 600억원을 출자키로 하면서 인수 1년만에 매각에 나섰다. 매각작업은 동양네트웍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바람에 전면 중단됐다. ... | 이용건 기자 +more

## "저금리 기조 지속... 보험사들, 대체투자비중 크게 늘릴 것"

### 프랭크 쿠 악사부동산자산운용 亞 헤드



"향후 1-2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사들이 대체투자 비중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매일경제신문이 주관한 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공동으로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개최한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 2014)'에서 프랭크 쿠 악사부동산자산운용 아시아헤드는 '보험사 투자전략과 보험계열 자산운용사 역할'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보스턴컨설팅그룹과 함께 전세계 대형 보험사 28곳 최고운영책임자(CI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요인으로 저금리 기조를 꼽았고, 저금리 기

조가 향후 1-2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쿠 대표는 말했다. 이들 보험사의 AUM(운용자산) 중 80%가 채권 투자에 편중돼 있어 금리가 1% 하락할 때마다 당장 2000억달러(약 205조원)의 손실을 보게된다고 쿠 대표는 설명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앞으로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답해 앞으로 대체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쿠 대표는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수익률을 개선해야 하는 보험사 CIO들이 투자자산을 ... | 기획취재팀 +more

## 성장사다리 IP·코넥스 펀드운용사 선정

KB인베스트먼트와 포스텍기술투자·아이디벤처스(공동), SBI인베스트먼트가 성장사다리펀드 '지식재산(IP) 펀드'와 '코넥스 활성화 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지난 15일 KB인베스트먼트와 포스텍기술투자·아이디벤처스(공동) 2곳을 IP시장 활성화를 위해 결성되는 IP펀드 운용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IP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에서 각각 250억원씩을 출자해 총 1000억원(각 5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6개월 내 펀드 결성을 마무리 짓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총 4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코넥스 활성화 펀드' 위탁운용사에는 SBI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됐다. 이 펀드는 코넥스 상장을 준비하는 예비 기업이나 상장된 유망 주식에 투자해 침체된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됐다. | 강두순 기자

## "지금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의 황금기"

### 스티브 그로스 맥쿼리 전무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은 향후 10년간 황금기를 누릴 것이다" 스티브 그로스 맥쿼리인프라스트럭처 전무는 지난 13일 매일경제신문 레이더M이 주관한 유럽상공회의소(ECCK)와 함께 개최한 '글로벌 대체투자콘퍼런스(GAI 2014)'에서 아시아 인프라투자의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중국·인도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인프라 확장 대열에 동참하면서 아시아 시장이 전혀 없는 호황을 누린다는 전망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아시아지역은 도시 인구가 연평균 1.4%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45% ... | 기획취재팀 +more

## "해외 부동산 투자 확대해야"

### 최창훈 미래에셋금융 부동산부문 사장

"향후 국내 기관 투자자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머징과 선진국 시장, 오피스빌딩과 호텔 등 전략에 따라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투자부문 사장은 지난 13일 매일경제신문이 개최한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2014'에서 해외부동산 투자에 많은 기회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다양한 전략을 소개했다. 최 사장은 "이머징 시장에서는 고수익이 기대되는 반면 변동성이 크고 선진국 시장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이머징 ... | 기획취재팀 +more